



경준해, 길림성대표단을 인솔하여 독일 교류 방문

호혜협력 기초 튼튼히 다지고 대외개방 수준 제고하여 길림 고품질 발전 지속가능 진흥에 새 동력에너지 보태다

길림성과 독일폭스바겐 협력 비망록 체결

현지시간으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성당위 서기이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경준해는 길림성대표단을 인솔하여 독일에 가서 교류 방문을 진행, 습근평 외교사상과 새시대 동북전면진흥추진 좌담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중국과 독일 두 나라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전달하고 호혜협력의 토대를 한층 더 튼튼히 다졌으며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길림성과 독일 각 분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깊이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추동하여 길림성 고품질 발전과 지속가능한 진흥에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보태주었다.

올해는 중국과 독일이 전방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얼마전, 습근평 총서기는 북경에서 독일 총리朔츠를 회견하고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여 강화하고 호혜협력을 심화하며 손잡고 세계에 더욱 많은 안정성과 확정성을 주입해야 한다는 데 일치하게 동의했다. 중국과 독일의 산업사슬, 공급사슬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있으며 량국 시장은 고도로 의존하고 있다. 길림성과 독일은 자동차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긴밀하고 연원이 깊다. 독일 폭스바겐(大众), 콘티넨탈자동차전자(大陆汽车电子) 등 일부 유명기업들은 길림에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투자를 전개하여 량호한 협력 기반을 형성하였다. 5월 27일, 경준해는 독일 폭스바겐그룹감사회 주석이며 포르쉐(保时捷) 지주회사 리사장인 반스와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시티에서 회담을 갖고 길림성과 독일폭스바겐그룹이 협력 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견증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관리사회 의장이며 포르쉐지주회사 관리사회 의장인 오보무가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길림성의 경제사회발전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길림성은 독일과의 친선 왕래를 고도로 중시하며 폭스바겐그룹과의 실무협력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현재 독일폭스바겐은 길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고 규모가 가장 크며 효익이 가장 좋은 세계 500대 기업으로 되었다. 쌍방의 밀접한 협조와 협력으로 아우디제1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등 중점 협력 프로젝트는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왔고 길림성과 독일폭스바겐의 협력은 더욱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폭스바겐이 새시대 길림 전면 진흥의 정책적 기회와 중국 신에너지자동차의 급속한 발전의 시장 기회를 포착하여 길림성과 중국제1자동차와의 호혜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길림의 '4대집권' 육성, '6신산업' 발전, '4신시설' 건설의 신질생산력 발전 구도에 주동적으로 련결 융합되길 바란다. 아울러 아우디제1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등 중대한 프로젝트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제1자동차폭스바겐의 고급 량질 차종의 세대교체를 다그치며 각종 생산요소 배치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더욱 많은 최고급 과학기술혁신인재를 지속적으로 인입하여 쌍방이 손잡고 중국 자동차 시장을 잘 경영하는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하길 바란다. 반스와 오보무는 길림성이 아우디제1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등 중대한 프로젝트 건설에 제공한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길림성과 중국제1자동차 등 협력 동반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자동차 과학기술과 제품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며 광활한 중국 자동차 시장을 손잡고 개척할 용의가 있다고 표시했다. 중국제1자동차그룹 리사장이며 당위 서기인 구원동, 독일폭스바겐그룹 관리리사이며 폭스바겐그룹(중국) 리사장 겸 CEO인 베리드, 독일폭스바겐그룹 관리리사회 의장이며 포르쉐지주회사 관리리사회 의장인 오보무가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길림성의 경제사회발전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길림성은 독일과의 친선 왕래를 고도로 중시하며 폭스바겐그룹과의 실무협력을 매우

와 프랑크푸르트에서 회담을 갖고 장춘 정월구와 콘티넨탈자동차안전시스템(장춘) 유한회사의 협력협의 계약체결을 견증하고 그에게 길림글로벌 투자유치고문 초빙서를 발급했다. 경준해는 콘티넨탈자동차전자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지능화, 네트워크 련결화, 다기능 집성화의 새로운 추세에 초점을 맞추어 길림성과 자동차 부품 등 분야의 실무적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장춘정월구공장 2기 증축 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하길 희망했다. 아울러 더욱 많은 대형 프로젝트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배치, 건설하며 수 소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응용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쌍방의 협력 토대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며 손잡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 길림성이 만억급 현대 신형 자동차와 부품 산업집권을 구축하는 데 조력하기를 바랐다. 필리프 폰 히르쉬헤이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콘티넨탈자동차전자에 있어 중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길림성과 더욱 심도 있는 협력을 전개하고 신기술 연구개발, 신제품 생산을 손잡고 추진하며 쌍방의 협력이 더욱 풍성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

5월 29일, 길림성대표단 일행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중국 길림-독일 경제무역협력교류회에 참석하여 쌍방의 7개 중점 협력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을 견증했다. 경준해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길림성은 동북아지역의 지리적 기하학적 중심에 위치해있는바 중국이 동북전면진흥전략을 실시하는 핵심구이고 중국의 '일대일로'가 북쪽으로 개방되는 중요한 창구이자 중요한 공업기지이며 상품식량기지지자 청정에너지생산기지이다. 지금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체계, 고품질 생활체계, 고수준 안전체계를 일체적으로 구축하여 새시대 길림 전면 진흥이 실현하여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것을 힘써 추진시키고 있다. 올해

1분기 전 성 GDP 성장률은 6.5%로 2년 연속 전국의 첫자리를 차지했고 기타 여러 지표도 모두 전국 앞자리에 처해있다. 이는 안정하게 상승시기에 처해있고 쾌속차선에서 안정하게 발전하고 있는 길림 전면 진흥의 량호한 태세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기업과 상업협회가 적극적으로 길림과 손잡고 자동차, 장비제조, 현대 농업, 의약건강, 신에너지·신소재, 문화관광 등 중점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협력 규모를 끊임없이 확대하며 협력의 내포를 풍부히 하고 협력 차원을 향상하여 길림성과 독일의 경제무역협력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나갈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예견과 다름없이 길림성에 투자한 광범한 기업들에 유력한 정책지원, 강대한 요소보장, 우수한 발전환경을 제공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투자하고 창업하며 순조로운 발전이 있게 할 것이다.

바스프그룹, 지멘스주식회사, 바이엘그룹, 콘티넨탈그룹, 씨네토메코놀로지, 코드보그룹, 예보닉 인터스트리그룹, 위바스트그룹, 마멜리그룹, 크노르그룹, 갈리다그룹, 위아파이크, TPV 과학기술그룹, ABC 조임부품, 이탈리아 도회사, 라인스터그룹, 미노젠너가스, 브로제회사, 룬항공 및 팔레미국제투자촉진회, 프랑크푸르트상공회 등 30여개 기업과 상공회 대표들이 교류회에 참가했다. 회의 후, 경준해와 갈리다그룹 수석집행관 클라우스 행크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에바바흐에서 회담을 갖고 룬젤라틴(明胶) 협력 프로젝트의 빠른 건설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할 데 대한 쌍방의 합의의 체결을 견증했다. 동시에 손잡고 젤라틴산업사슬을 확장하고 의약건강산업을 우수하게 하고 강화할 데 대해 깊이있는 교류를 진행했다.

독일 방문 기간에 대표단 일행은 프랑크푸르트 주재 중국총領사관을 방문하고 화웨이 유럽구 총재 로융과 교류 관련 협력 사항을 상담했다.

/ 길림일보

길림성 제 8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원만히 마무리



▲ 차기 길림성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가 매하구시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매하시관광위원회 주임 송흥위가 성민과 주임 풍경중으로부터 회기를 인계받았다.

5월 30일 오전, 길림성정부에서 주최하고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와 길림성체육국, 백산시정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길림성 제 8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가 백산시문화체육예술센터에서 원만히 폐막되었다.

5월 27일에 시작된 이번 운동회는 28일에 개막식을 올렸으며 도합 사흘간의 치열한 각축전을 거쳐 29일 오후까지 모든 경기 일정을 마치고 30일에 폐막식을 가졌다. 전 성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와 매하구시에서 온 11개 선수단, 1,100여명의 선수와 지도원이 도합 14개 경기와 공연 종목에 참가했다.

폐막식에서 길림성체육국 부국장 곡영개가 폐막사를 하고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장성이 체육도덕 풍격상(凤尚奖) 수상단위 명단을 선포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장춘, 백산, 송원, 연변 등 체육도덕풍격상을 수상한 11개 선수단에 시상했다. 길림성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회기가 백산시 시장 왕설봉과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중의 손을 거쳐 매하시관광위원회 주임 송흥위의 손에 건네지며 정식 인계되었다.

이번 운동회는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돌파와 혁신을 했다.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꿈을 함께 구축하자'는 주제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이 주선이 운동회 전 과정을 관통했는데 개막식 공연의 내용 배치나 경기 종목의 선택 설치에서 모두 중화민족공

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핵심적 함의를 충분히 구현했다. 대중성과 취미성이 강한 민족체육경기를 통해 전 성 여러 민족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중화문화의 다원일체의 독특한 매력을 충분히 느끼게 하고 공동으로 단결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는 여러 민족 대중들의 정신풍모를 전면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여러 민족의 래왕과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사회적 효과를 확실하게 달성했다.

길림성은 다민족 번강성으로서 56개 민족성분이 구건하고 민족문화가 다원화되어있다. 길림성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를 개최함으로써 당의 민족정책의 인도 아래 단결분진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우리 성 여러 민족 인민들의 정신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여러 민족이 공유하는 중화문화 기호와 중화민족의 행성을 두드러지게 과시하고 일심전력으로 당을 향한 전 성 여러 민족 인민들의 신심과 각성을 진작시켰으며 우리 성의 민족단결진보, 번강의 조화와 안정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이번 운동회는 새시대, 새 로정에서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는 우리 성 여러 민족 인민들의 정신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길림의 전면 진흥이 실현적으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다.

길림성 제 9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는 매하구시에서 개최된다.

/ 유경봉 오건 기자



“아름다운 중국꿈 은 어린이들에게 속한다”

오늘은 '6.1'국제아동절이다. 소년아동들은 조국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이다. 소년아동을 잘 양성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적 임무이며 장원한 사업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꿈 실현은 우리 세대에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다음 세대에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 “오늘은 조국의 훌륭한 어린이가 되고 래일은 조국의 건설자가 되어야 하며 아름다운 생활은 어린이들에게 속하고 아름다운 중국꿈은 어린이들에게 속한다.”고 새시대 소년아동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보여주었다.

/ 박경남특약기자

전국 철도, 6월 15일 새 열차운행도 실행!

6월 15일 0시부터 전국 철도는 새로운 열차운행도를 실행한다. 조정후 전국 철도는 고정운행열차만 2,690편을 배치하는데 이는 현재 고정운행열차에 비해 205편이 늘었다. 화물열차는 2만 2,595편으로 현재에 비해 74편이 증가되는데 철도 화물운수 능력, 서비스 품질과 운행 효율이 한층 향상된다.

이번 조정은 철도부문이 20차 당대회와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국가 중대 전략과 지역 경제사회발전전에 초점을 맞추어 운송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새로운 로선 및 장비 자원의 사용을 조정하며 전국 철도 열차운행 방안에 대해 진일보 최적화하는 것이다. 조정후 우리 나라 철도망의 전반적인 기능이 더욱 향상되고 객 및 화물 운송 능력이 더욱 향상되며 우리 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인민의 생활생활에 강유력한 운송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첫째, 경강고속철도 전체 로선은 시속 350킬로미터의 높은 수준으로

운행되며 운송 품질이 진일보 향상된다.

둘째, 중서부지역의 열차운행 구조를 개선하여 중부지역의 부상과 서부지역의 발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준다.

셋째, 일부 려객열차의 운행방안을 최적화하여 국가 전략과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넷째, 화물제품의 공급을 최적화하고 국내외 이송순환의 원활한 흐름에 힘을 보탠다.

다섯째, 려객과 화물 운송 서비스 품질, 그리고 려객의 체험도를 향상시킨다.

철도부는 새 열차운행도 승차권은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매될 예정이며 조정후 열차운행 정보 및 서비스 정보는 철도 12306, 95306 사이트, 클라이언트, 위챗 등 경로를 통하거나 혹은 각지 철도부문에서 게시하는 동적 정보 및 주요 기차역 광고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에 따라 합리적인 일정과 화물운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 인민넷